

## 평생교육 열풍

광주·전남 200여기관 연간 강좌 9000개

“은퇴 후 바람 끝에 선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배우고 싶어, 나이 들어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미있는 거야”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강좌에 참가한 67세 노인의 소감이다. 은퇴후 새 출발을 돕기 위한 강의지만 그는 그저 재미있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흡족해 했다.

언제부터인가 강의실이나 강연장, 문화센터 등에서 중년 주부나 직장인, 은퇴한 시니어, 노인들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어려운 시기 한글마저 익히지 못해 가슴에 맺힌 ‘못배운’ 한을 풀려는 할머니·할아버지, 퇴사 후 창업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은퇴자, 늘그막에 화가나 성악가의 꿈을 꾸는 노인, 사회복지사가 돼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중년의 주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0여개 기관이 한해 9000개가 넘는 평생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만 놓고 보면 지역인구의 10%가 매년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셈이다. 가히 ‘평생교육 열풍’이라 할 만하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4일 오후 7시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강의실에서 진행된 평생교육프로그램 ‘은퇴자 협동조합’ 과정. 40~60대의 중년층과 시니어 등 20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었다. 협동조합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과 법률 용어 등 딱딱한 내용이 상당 부분 나왔으나 수강생들에게 따분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가 진지한 모습으로

강의를 듣는가 하면 교수와 의견을 주고받는 등 대학 강의실 이상의 열정이 엿보였다.

먼저 수강생들의 이력에 눈이 끌렸다. 지자체 부군수(2명) 출신에서부터 지방은행 지점장, 보험회사 간부, 가정주부, 인권운동가까지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다. 강의를 이끄는 이상면(58)교수는 전문 금융인 출신으로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이다.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둔 이들은 강의들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협동조합에 대해 배우며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금 이외의 수익 창출 방안을 배우고 있었다. 송미라(50)씨는 “남편의 은퇴가 얼마남지 않아 자금부족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수업에 참가했다”며 “은퇴 후 연금으로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업체에서 20여년을 근무했던 최향진(54)씨는 “우리 같이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앞으로 은퇴 후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단순히 여가활동을 하며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최신 정보도 알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면 교수는 “급변하는 고령화 시대에는 은퇴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된다면 귀중한 지역의 자원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자들이 위촉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즐기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주부·은퇴자·노인...  
지역인구 10% 수강  
“늦바람 공부 즐거워”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이 2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3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세계한상대회 개막

45개국 1000여명 참가...정총리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



세계 무대를 누비는 한민족의 비즈니스 축제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련기사 2·8면>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세계 45개국 1000여명의 한상(韓商)과 전남·광주지역을 비롯한 국내 2000여 명의 기업인이 참가했다.

29일 오후 5시 한상가의 입장으로 시작된 개회식은 정홍원 국무총리 휘하에서 모인 한상들이 모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모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번 한상대회는 호남지역 최초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광주만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지역 산업체

와 한상의 비즈니스 연계를 모색한다. 이날 오전 개막한 ‘기업전시회’에는 기업 및 기관 430여 업체가 참가했으며 지역특화 기술 산업체 100여 업체가 광주시 특산물전시관을 마련, 참여했다.

기업전시회를 둘러보던 한상들은 광주의 광산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역 광산업 업체인 프로맥LED의 기술력을 소개하자 크로아티아의 한상이 즉석에서 제품을 수취하고 싶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정부는 신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사업 차질이 우려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국비 확보에 이어 저심도 방식으로의 설계변경도 사실상 확정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상고가방식으로 건설하려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공해 등을 유발한다는 시민여론에 따라 지하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는 의견 일치를 봤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변경 승인을 미룬 뒤 신규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사업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

지상고가→저심도...정부 내달중 사업 변경 승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탄력

조만간 기본설계 착수

고 설득한 끝에 최근 내년도 국비에 기본계획 및 설계비 52억원이 반영됐으며, 기재부도 조만간 변경 승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처음부터 저심도를 찬성했으며, 기재부도 내달 1일자로 자체 규정(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변경한 뒤 변경 승인에 동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계획대로 2016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2016년 착공해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41.7km 구간이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1조 7394억원(국비 60%, 시비 30%, 지방채 10%)이며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2곳이 들어선다.

한편, 저심도 방식은 지하로 9m 이상 파는 기존 중전철과는 달리 지하 4~9m를 파서 운행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2014 대학원 신입생모집**

신화대학원 특별전형  
2013년 11월11일(월)~22일(금)  
각 대학원 신입생 일반전형  
2013년 12월 2일(월)~10일(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062)605-1115

**예술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11월호

10월 28일 발매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특집  
**참 좋다, 아날로그**  
느림의 행복, 사람의 향기 찾는 이들  
되살아나는 아날로그 풍경  
LP카페, 사직골 통기타거리

기획  
**광주, 문화인프라**  
문화도시 광주가 기다리는 명품 아트센터  
설계를 위한 제안과 벤치마킹  
런던 바비칸센터, 파리 폼피두센터  
세계 복합문화센터 그들의 성공전략

특집  
**참 좋다, 아날로그**  
느림의 행복, 사람의 향기 찾는 이들  
되살아나는 아날로그 풍경  
LP카페, 사직골 통기타거리

기획  
**광주, 문화인프라**  
문화도시 광주가 기다리는 명품 아트센터  
설계를 위한 제안과 벤치마킹  
런던 바비칸센터, 파리 폼피두센터  
세계 복합문화센터 그들의 성공전략

**예향초대석**  
“이제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0년대 배경 장편소설로 독자 만나는 시인 최영미

마주안은 책과 사람 | “상처를 두려워마라”  
철학자 강신주가 안내하는 책으로 가는 길 & 인문적 삶  
이달의 아티스트

뮤지컬 연출가 유희성의 무대열정과 ‘빛깔 아리랑’ 탄생 뒷이야기

조각가의 손으로 탄생시킨 예술 놀이터  
소아르의 가을

이사람! 늑대소년, 추격자 등 화제작 메이커  
광주출신 ‘비단길’ 대표 김수진의 영화 인생

문화역사 기행  
우리의 음악은 깃든 중주 단군대  
강물 위를 달리는 애달픈 ‘현의 노래’를 듣는다

문화동행, 편편 칼럼  
동호회 회원들이 말하는 역도의 매력  
“순간의 파워, 중독성 있어요”

전라도 그 맛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별고 참고막  
홍로 태운 - 전남 고향

지역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남포미술관  
감칠맛 에너지봉장어구이

스타 데이트  
한류스타의 변신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로 돌아온 배우 최지우